

10·26 서울시장 보선 ... 여·야·무소속 후보 4파전

여야·시민후보 단일화 미묘한 신경전

나경원 '정책선거론' 박영선 '정권심판론' 세대결

박원순·이석연 '대안세력' 부각속 대민접촉 주력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나라당의 나경원, 민주당의 박영선, 시민단체 출신의 박원순, 이석연 후보의 4파전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후보 단일화라는 화두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정책선거론'을,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초반 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후보들은 기존의 정당 정치 색인을 내세우며 '대안세력'으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시정을 심판할 수 있는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정당정치 우려론'은 이날도 시민후보들이 내세우며 '한계론'과 서로 충돌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후보단일화와 관련, 여권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는 반면 야권에서는 오는 10월3일 통합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레

이스가 시작된 양상이다.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범여권 시민후보인 이석연 변호사의 행보에 대해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대안세력에 대한 희망이 단기간에 실제 이상으로 부각된 측면이 있으나 무소속으로 정치권 들어와 성공한 예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박원순 변을 것으로 전망되는 후보단일화에 대해 "그렇게 되면 정당정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라며 "MB정권의 심판에 대해 박 변호사가 특별한 메시지를 안내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석연 변호사는 "원칙과 소신을 어떻게 알려나갈 지 그 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후보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거래나 쇼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원순 변호사는 "경선을 통해 열심히 하겠다"면서도 "정치적 어떤 흐름이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변은 "이날 오전 서울 삼정동의 한 북카페에서 '가계부담, 주부들에게 듣는다'라는 행사를 갖는 등 일반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여·야·시민단체 후보의 4파전으로 정리됐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후보 나경원 최고위원, 민주당 후보 박영선 정책위의장, 범야권 시민후보 박원순 변호사, 범여권 시민후보 이석연 변호사. /연합뉴스

한나라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

김충환 의원 경선출마 사퇴 ... 사실상 확정

한나라당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마한 김충환 의원이 26일 당의 여론조사 경선 방침을 문제 삼아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경원 최고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형식적인 여론조사 경선에 시간과 에너지, 당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오늘 경선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밖에 시간을 안 주고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 후보와 후보의 정책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겠느냐"면서 "외부인사와의 단일화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내부 인사를 갖고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도 들었다"고 말했다.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28~29일 양일간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 30일 후보를 확정키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경선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내가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민주적 절차는 미흡했고 경선불이 너무 불공평했다"며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두 명의 경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 의원이 중도 사퇴함에 따라 경선 절차 없이 나 최고위원을 당 후보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사퇴로 경선

후보가 나 최고위원 한 명만 남게 됐다"면서 "28일 공심위 회의에서 후보를 정하고, 빠르면 29일 최고위원회 의를 열어 후보를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나 최고위원은 당 대변인이 이어 지난해와 올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임명된 뒤 집권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까지 뛴에 따라 한나라당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했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선(서울 중구),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으나 만만치 않은 득표력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단일후보 경선 레이스 본격 접화

서울시장, 박영선·박원순 양강구도 속 민노 최규엽 출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를 뽑기 위한 야권의 통합경선 레이스가 26일 본격 접화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민주노동당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시민사회 측 박원순 변호사로 경선 후보가 결정됐고, 여론조사·TV토론 후 배심원 평가·국민참여경선 등이 포함된 단일 후보 선출 방식도 가닥이 잡혔다.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양박(兩朴) 후보는 '아름다운 경선'(박영선)과 '축제같은 경선'(박원순)을 다

잡하면서도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펼쳐, 10월 3일 최종 경선일까지 일주일간의 치열한 승부를 시사했다.

박 의원은 책임 있고 안정적인 시정을 구현하고 한나라당의 조직력을 넓어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 나서야 한다는 '정당후보론'을 썼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선두를 달리는 박 변호사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소망을 담은 강력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시민후보론'으로 맞불을 댔다.

다.

박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구정장, 시의원, 구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라며 "정당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민주당과 정치권이 여러 일을 해왔지만, 나는 정치적인 흐름에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박원순 견제 기선잡기

내달 3일 야권통합 후보 경선

민주당이 26일 야권통합 후보 경쟁자인 박원순 변호사 견제에 나섰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경선에 앞서 기선잡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변호사가 야권 후보로 확정될 경우엔 영입 또는 유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당 지도부는 박 변호사에 대한 직접 공세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전날 경선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후보 소멸론'을 제기하며 박 변호사를 겨냥했던 박영선 후보는 이날도 "박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에 대

한 심판이라는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장 보선을 복지전쟁 2라운드로 규정하고 "복지전쟁을 치러온 민주당 후보만이 최종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이 책임자임을 재차 강조했다.

야권 통합경선을 민주당 측 협상 대표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심한 듯 박 변호사를 비판했다. 그는 박 변호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주

장해은 여론조사 3, TV토론 후 배심원평가 3, 국민참여경선 4라고 하는 경선틀을 받아들인다"고 밝힌 데 대해 "3:3:4 방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방안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박 변호사 측,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가 합의, 조정한 안이었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안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 방식과 현장투표방식으로 단일화하면 6:4로, 여론조사에서 앞서서 박 변호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선을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과정을 공개한 것은 중대한 파울 플레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영선 최종 후보 만들기

손학규 "당력 집중하겠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민주당은 10월3일로 예정된 야권 단일후보 경선에서 자랑스러운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의원을 최종 후보로 만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토건이나 복지나 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시장 후보 경선따른 민주당내 역학 구도는

孫 '체면 유지' 鄭 '열세 확인'

민주당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은 당내 역학구도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동원선거 성격이 짙은 당원 현장투표가 경선의 최대 변수로 등장하면서 경선 결과는 당내 대선주자들의 세력 판도를 점쳐볼 가능성도 여겨졌기 때문이다.

일단 손학규 대표는 박영선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원했다는 평가가 많아 이번 경선의 수혜자로 꼽힌다. 비주류 측에서는 손 대표가 경선 막판 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전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 캠프가 486, 친노(親盧), 재야파 등 연합군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손 대표가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손 대표가 체면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번 경선 결과로 세력의 열세를 확인했다는 평가다. 천정배 후보를 지원했던 정 최고

위원은 경선방식 논의과정에서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원 현장투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이는 여론조사상 천 후보의 열세를 현장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경선 결과는 이런 예상과 빗나갔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천 후보가 33.8%의 지지를 받아 박 후보(36.9%)를 3.1%포인트까지 따라붙었다는 점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의 존재감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출마를 강하게 요청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중립을 유지해 득실을 평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6-홍-9061호

'공황장애' 한방(韓方)으로 치료!

공황장애(恐慌障礙)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공포감에 당황하는 증상이라는 뜻이다. 마치 어린 새가 동우리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무섭고 당황해 하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처럼, 집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힐 듯하면서 어지러움과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마비될 것 같은 감각을 느낀다. 동시에 무슨 응급상황이 신체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심장이 곧 멎어서 죽든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만 같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즉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 가게 만든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공황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공황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신체적인데 있다는 주장에 많은 신경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뇌의 어떤 생화학적 기능장애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들은 위험을 탐색하는 대뇌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온다고 주장하고 또다른 학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보기능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공황장애는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정신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방에서는 심담기허(心膽氣虛)와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심비양허(心脾兩虛), 심신불고(心腎不交), 위중화해(胃中不和) 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공황발작의 증상의 특징은 첫째는 예기치 않은 중에 아무런 특별한 자극이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실과 그 발작이 보통 길어야 10분 정도로 짧다는 것과 몇가지 특수한 증상이 있다는 점이다.

- 1)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짐
- 2) 땀을 흘림
- 3) 손, 발 혹은 몸이 떨림
- 4)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
- 5) 흉통 또는 흉부 압박감
- 6) 질식할 것 같은 느낌(목이 눌리거나 쏠리는 감각)
-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 8) 자제력을 잃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 9)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

10) 죽을 것 같은 두려움
11) 오한 또는 열감을 느낌
12) 어지러움과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어지러움, 불안정감, 머리 멍한 또는 쏠림)
13) 감각이상(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

한방에서는 공황장애를 마음속에 응어리진 갈등 즉 울화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나타낸다. 치료처방으로는 보혈안신제인 보혈안신탕이나, 소간해울제인 소간해울탕 등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환자 한사람을 실제로 치료할 때 어떤 치료 전략을 세우고 약물을 어떤 것을 택하여 어떻게 사용

한스나 하는 것은 상당한 임상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 공황장애가 여러 다른 신체 및 정신장애와 동시에 이행(遷延)되어있는 경우 공황장애의 합병증으로 공포증, 예기불안,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서 이미 공포증이 매우 심해진 환자들에게는 약물치료 외에도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가지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공황장애의 치료는 진단과정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치료방법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중 주택(주택수선환) | 송정리 | 을고계 | 중앙병원

경희한의원

※ 주자강 연비 ※ 연비 및 약제사 면허가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 한방소아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침 · 뜰 · 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